

정기구독·친환경 출판문화·콘텐츠 수출

지난 6월 4일~9일 2003 서울국제도서전이 엿새 동안 열렸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올해 도서전은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또 내려야 했을 정도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책을 홍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부스를 만드느라 투자를 아끼지 않은 출판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영업부 직원이 주로 부스관리를 담당했지만 올해에는 편집부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자신이 만든 책을 소개하는 등 전직원의 마케팅 참여가 열기를 띠었고, 편집장 사장도 이틀에 한 번꼴로 부스를 찾아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화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출판인들 역시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문화사업을 한다'고 공허하게 외쳤던 출판사 사장들에게는 이번 도서전이 적자생존의 한 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도서전의 <출판저널> 부스를 찾아 정기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과월호를 한 권씩 사들고 돌아가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100명 가까운 정기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재창간호에서 '책은 곧 집'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집은 벽돌을 쌓아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장의 벽돌이 모자라도 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모아주신 벽돌은 <출판저널>이란 집의 한 부분을 오래도록 지탱시켜 줄 것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도감출판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을 마련한 것은 이런 의미와 더불어 한층 성숙해진 도감 출판문화를 격려하고, 거기에 일익을 담당한 도감관련 출판인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출판저널>은 친환경적인 출판문화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지면을 배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문정신과 환경, 과학을 접목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도감출판물을 만드시는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들어 출판인들을 만나면 부쩍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책이 안 팔려서 한숨을 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무지 국내 저작물을 펴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3년 15.5퍼센트를 차지했던 번역물이 10년 동안 계속 그 폭을 넓혀와 지금은 약 30퍼센트에 달하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국내 저작자들이 어떻게 깊이 있는 저작을 위해 몰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6월 20일까지만 해도 번역출판물은 1만 8,384종이 출간돼 전체 간행물의 2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물은 일정 부수를 판매할 수 있겠다는 예단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콘텐츠의 가치와 외국에서의 판매수치가 출판의 모험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요. 그러나, 그 기대에만 얽매어 국내 저작자들의 저작열기를 북돋아 주지 못한다면 한국의 저작환경은 날로 시들해질 것입니다. 번역물 출판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폭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 땅의 많은 문화지식인들이 그 지식을 체계화하고, 과학화하면서 문화의 체적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독자와 서점인, 출판인, 문화관광부 정책 담당자들이 좀더 애정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무릇, 국내 콘텐츠가 풍성해져야 그 콘텐츠의 수출도 가능한 법입니다. 당장 우리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출판문화를 들고 가야 할까요. 그때, 때는 늦으리, 해가며 빈 가방을 만지작거리서는 안 될 일입니다.

7월의 녹음이 이미 창밖에 다가와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임동현/본지 주간